

연구논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 동 진**
박 관 태***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함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3,731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여성, 30대, 고졸 이하, 5~10년 미만의 혼인 기간, 4~5명의 가구원 수, 13.5/20점의 한국어 실력을 보인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사회적 활동참여가 적으며,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였다. 즉,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많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가 매개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결혼이민자, 사회적 활동참여, 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제1저자,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djlim@sch.ac.kr)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pkt62146@naver.com)

I. 서론

21세기는 ‘이민의 시대(Age of Migration)’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 인구이동이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다. 2017년 기준 세계인구의 3.4%인 2억 5천만 명이 국제이주(이민) 인구이고, 이들은 현재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UN, 2017).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1990년에 약 5만여 명에서 2020년 현재 2,036,075명으로 전체 인구(51,829,023명)의 3.9%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이 중 장기체류외국인은 1,610,313명(79.2%), 단기체류자는 425,752명(20.8%)으로, 장기체류자 중 단순기능인력이 409,039명(25.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168,594명(10.4%), 영주자격 체류외국인 160,947명(9.9%), 유학생 153,361명(9.5%), 전문인력 43,258명(2.6%)의 순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결혼이민자¹⁾는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에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단순기능인력+전문인력)나 유학생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해서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민자 집단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female)는 국제이주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족형성이민(family-formation migration) 또는 결혼이민(marriage migration)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Lee, 2010). 동북아시아에서 결혼이민 현상은 주로 노동이주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시민권 취득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Lee, 2008; Piper, 1997; Piper et al., 2003). 한편 국내적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의 안정,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관심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중반 이후 결혼이민자가 급증하자 한국정부는 2006년부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여건, 고용상태, 건강과 우울증, 결혼생활 만족도 등의 구체적인 세부 분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이영분 외, 2010; 이오복, 2009;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민자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1)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국적의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 있는 외국인을 의미한다(이창식, 2010).

활동참여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활동참여에 관한 연구(양순미, 2010),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Lee, 2013; 김한성·이유신, 2013; 이현지, 2017)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각각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시행한 ‘2018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²⁾자료에서 결혼이민자(3,731명)만을 추출해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관련 요인

사회적 활동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활동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활동참여는 참여정도나 수준에 따라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혼자 하는 모든 일상 활동이고, 둘째는 타인과 접촉 없이 타인의 주변에서 하는 활동이고, 셋째는 타인과 사회적인 접촉을 하지만 타인과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단계이다. 넷째는 타인과 협업하는 활동이고, 다섯째는 개인이 타인을 돕는 활동이고, 여섯째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Levasseur et al., 2010).

위와 같은 사회적 활동참여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

2) 전국다문화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외에도 귀화자, 배우자, 청소년 자녀 등 총 17,073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요하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사회적 활동참여가 많을수록 건강과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인다. 나아가 지역사회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Douglas, et al., 2016).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는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를 각성하게 한다(Palmore, 1981; 박정은, 1994; 양순미, 2010). 또한, 이는 타인들과의 관계와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게 한다(Phillips, 1967; Rowe & Kahn, 1998; 양순미, 2010). 특히, 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새롭게 정착한 낯선 환경에서 사회적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촉진에 매우 중요하다(Fernandez & Fernandez-Mateo, 2006; Fong & Shen, 2016; Gold, 2001; Hagan, 1998).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결혼여부, 건강수준 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건강수준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활동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ong & Shen, 2016; Lai et al., 2019).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에는 가족의 지지,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 보답하고 싶은 마음 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주변의 권유가 많을수록, 호기심이 강할수록,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사회적 활동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부현 외, 2016; 유정숙, 2012).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는 경제적 수준, 이웃과의 화합수준, 사회적 지지, 공동체 의식 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화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i et al., 2019).

2.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요인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삶의 질(quality of life)³⁾에 대한 지표 중의 하나로

3)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필수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Veenhoven et al., 1996). 개인에게 식량, 주거, 건강 등과 같은 필수조건들이 충족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필수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삶의 질은 낮아진다(Veenhoven et al., 1996).

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을 의미한다(Moons et al., 2006; Pavot & Diener, 2008).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Shin & Johnson, 1978; Veenhoven et al., 1996; Vohra & Adair, 2000).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신체 및 정신적 건강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에는 성별, 연령,⁴⁾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이 있다. 즉,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상태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다(Bjørnskov et al., 2008; McCaffery & Slemrod, 2006; Safi, 2010).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요인에는 소득, 고용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자본, 종교 등이 있다. 즉,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Bjørnskov et al., 2008), 사회자본이 많을수록(Bjørnskov, 2003; Helliwell, 2003),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Clark & Lelkes, 2005)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요인으로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Safi, 2010).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은 정주민(내국인)들의 것과 차이가 있는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은 정주민들과 유사한 측면도 있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사회적 관계요인(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차별), 기타 요인(문화적응, 건강, 언어능력, 지역특성)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으로 결혼이민자 중 여성일수록, 종교성이 강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Amit, 2010; 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창식, 2010).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요인으로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김연수, 201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이창식, 2010),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도 높을수록(김연수, 2012),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중 사회자본이 많을수록(김민

4) 개인의 연령과 생활만족도는 선형관계보다는 비선형적인 U자 형태를 보인다(Blanchflower & Oswald, 2004). 즉,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다(Bjørnskov et al., 2008).

수·이현지, 2017),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가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있을수록, 규범준수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낮을수록⁵⁾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영균·이민자, 2016). 마지막은 기타요인으로 결혼이민자 중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김연수, 2012), 건강상태가 좋을수록(Angelini et al., 2015), 한국어가 능숙할수록(김경미, 2012),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김한성·이유신, 2013)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적 활동참여, 사회적 관계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위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활동참여가 활발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⁶⁾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중 가족연결망이 좋을수록(김연수, 2012), 본국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을수록, 배우자 가족 모임과 본인 가족 모임의 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12). 그리고 결혼이민자 중 모국인 친구와의 모임빈도가 높을수록(김경미, 2012), 이웃과의 관계가 긴밀할수록(이민아, 2010),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Douglas, et al., 2016; 이영희 외, 2015), 정치활동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배경희, 2013; 양순미, 2010).

그렇다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정도가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쉽게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이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은 생활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Amit, 2010; Massey & Redston,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와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역시 의미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5) 특히, 결혼이민자 중 거리나 동네,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강승엽·전희정, 2020).

6)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관계, 모국인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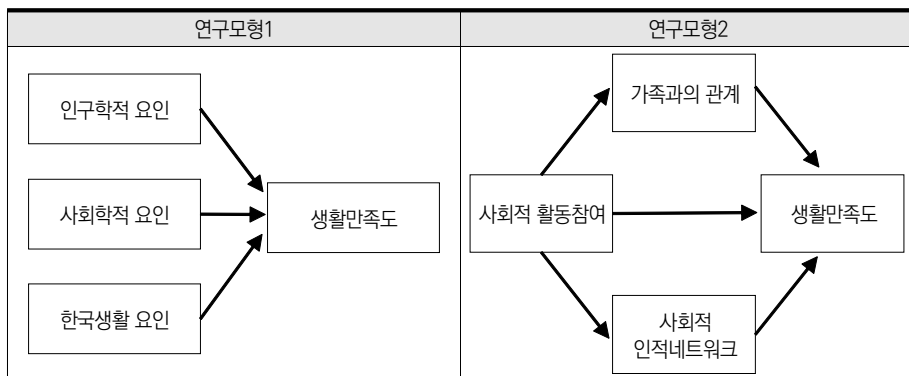
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연구는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사회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위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크게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1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한국생활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2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매개변수를 도식화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세부 변수로는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로 각각 구성하였다.

<그림 1>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모형



위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이들의 여러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결혼이민자 중 여성일수록, 종교성이 강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Amit, 2010; 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창식, 2010). 또한,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유한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Safi, 2010; 강승엽·전희정, 2020; 김민수·이현지, 2017; 김연수, 2012; 김한성·이유신, 2013).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날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이는 개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ouglas, et al., 2016). 또한,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관계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중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모국인 친구와의 모임빈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경미, 2012; 김연수, 2012; 배경희, 2013; 양순미, 2010; 이민아, 2010). 위의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관계 역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측정변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가구 특성 및 개별 가구원의 삶의 양태를 조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자료이다(여성가족부, 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에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매 3년마다 실시하여 2018년도까지 총 4회 실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크게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 결혼이민자·배우자 등의 배우자 조사표,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사 항목은 가구구성, 가구특성,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기타 일반사항,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경제활동 영역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9).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의 응답자는 총 17,07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17,073명의 표본 중에 결측값을 제외하고, 연구목적에 적합한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결혼이민자를 표본 추출하였으며, 최종 3,731명의 결혼이민자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측정변수로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한국생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변수는 Amit(2010), Angelini et al.(2015), 김한성·이유신(2013), 이창식(2010) 등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요인변수로 ①성별, ②연령, ③최종학력, ④혼인기간, ⑤가구원 수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학적 요인 역시 Angelini et al.(2015), Safi(2010), 강승엽·전희정(2020), 김민수·이현지(2017), 김연수(2012), 김한성·이유신(2013), 이창식(2010)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의 사회학적 요인변수로 ①결혼이민자의 총체류기간, ②귀화기간, ③가구소득, ④기초생활대상자여부, ⑤영주권취득계획, ⑥한국국적취득계획, ⑦한국어 실력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생활 요인 역시 김경미(2012), 김연수(2012), 배경희(2012), 양순미

(2010), 이민아(201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요인 변수로 ①배우자 대화시간, ②가족과의 관계, ③문화적 차이 정도, ④배우자와의 다툼, ⑤자녀와의 관계, ⑥한국생활 어려운 점, ⑦사회적 인적네트워크, ⑧정착서비스 이용 정도, ⑨공공기관 이용 정도, ⑩건강상태, ⑪우울증 경험 정도, ⑫사회적 지위, ⑬차별 경험 정도, ⑭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⑮생활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⁷⁾

〈표 1〉 측정변수들의 설명 및 측정방법

측정영역	측정변수의 설명 및 측정방법
인구학적 요인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연속형 변수(단위:세)
최종학력	0=고졸이하, 1=대졸이상
혼인기간	연속형 변수(단위:년)
가구원 수	연속형 변수(단위:명)
사회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연속형 변수(단위:년)
귀화기간	연속형 변수(단위:년)
가구소득	연속형 변수(단위:만원)
기초생활대상자여부	1=예, 0=아니오
영주권취득계획	1=있음, 0=없음
한국국적취득계획	1=있음, 0=없음
한국어 실력	이민자가 자기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의 총합(4-20점)
한국생활 요인	
배우자 대화시간	연속형 변수(단위:시간)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설문항목 평균측정: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 가족과의 관계 설문항목: 배우자, 배우자부모, 나의 부모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 설문항목 평균측정: 1(전혀 느낀 적 없다)~4(매우 자주 느꼈다) 문화적 차이 설문항목: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빈도(본인, 배우자)
배우자와의 다툼	1=있음, 0=없음
자녀와의 관계	1개 선택형 설문항목: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만족한다)
한국생활 어려운 점	한국생활 어려운 이유 설문항목 총합: 어려운 점 없음,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양육 및 교육,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 경제적 어려움, 언어문제,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 친구사귀기, 기타

7)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Harman's Single-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동일한 측정도구와 조사대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은 모든 변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해 동일방법에 의한 분산이 50%미만으로 나왔을 때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 편의에 대한 진단결과에서 동일방법에 의한 분산이 1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이 있는 영역 설문항목 총합: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일자리 관련, 자녀교육, 여가나 취미, 몸이 아를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정책서비스 이용 정도	정책서비스 받은 경험 여부 총합: 가정방문, 한국사회적응교육, 번역서비스,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언어발달지원언어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지원, 각종상담, 일자리 교육, 아이돌보미
공공기관 이용 정도	공공기관 이용 정도 설문항목 총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기타외국인지원센터
건강상태	1개 설문항목 평균측정: 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
우울증 경험 정도	1개 설문항목 총합: 1(매우 자주 느꼈다)~4(그런적 없다) (1-4)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설문항목 측정: 1=하, 2=중, 3=상
차별 경험 정도	차별경험 설문항목 평균측정: 1(차별 받은 경험이 없다)~4(매우 자주 차별을 받았다) 차별경험 설문항목: 거리나 동네, 상점음식점은행, 공공기관, 직장일터, 학교보육시설, 집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지난1년간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 정도 = 설문항목 총합: 학부모모임, 모국인 친구, 지역주민활동, 종교활동, 민간단체,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
생활만족도	1개 설문항목 총합: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 (1-5)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한국생활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 한국생활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⁸⁾

IV. 분석결과

1.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환경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에

8)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첫 번째 조건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앞서 측정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한국생활 특성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로는 여성 88.2%, 남성이 11.8%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9.8%, 30대 46.4%, 40대 18.7%, 50대 4.9%, 60대이상 0.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고졸이하 93.0%, 대졸이상은 7.0%로 나타났다. 혼인기간은 5-10년미만이 4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21.6%, 3~5년미만 19.4%, 1~3년 미만 12.1%, 1년미만 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4~5명이 5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3명 41.5%, 6명 이상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실력은 13.5/20점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여성, 30대, 고졸이하, 5-10년미만의 혼인기간, 4~5명의 가구원 수, 13.5/20점의 한국어 실력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정변수 (N = 3,731)	평균(표준편차) / 비율(%)
인구학적 요인	
성별	여성(88.2%), 남성(11.8%)
연령	20대 이하(29.8%), 30대(46.4%), 40대(18.7%), 50대이상(4.9%), 60대이상(0.2%)
최종학력	고졸이하(93.0%), 대졸이상(7.0%)
혼인기간	1년미만(0.0%), 1~3년미만(12.1%), 3~5년미만(19.4%), 5~10년미만(46.9%), 10년 이상(21.6%)
가구원 수	2~3명(41.5%), 4~5명(50.4%), 6명이상(8.0%)
사회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1년미만(0.0%), 1~3년미만(10.3%), 3~5년미만(15.5%), 5~10년미만(40.6%), 10년 이상(33.6%)
귀화기간	귀화하지 않음(97.5%), 1년미만(0.0%), 1~3년미만(0.2%), 3~5년미만(0.2%), 5~10년미만(1.1%), 10년이상(1.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2.1%), 100~200만원 미만(12.5%), 200~300만원 미만(32.5%), 300~400만원 미만(26.9%), 400~500만원 미만(13.5%), 500~600만원 미만(6.3%), 600~700만원 미만(2.6%), 700만원 이상(3.6%)
기초생활대상자여부	예(2.8%), 아니오(97.2%)
영주권취득계획	있음(68.1%), 없음(31.9%)
한국국적취득계획	있음(63.3%), 없음(36.7%)
한국어 실력(20점)	13.57(3.705)

주1) 체류자격: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2-1)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 대화시간은 2시간 이상(35.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분-1시간 미만(26.4%), 1-2시

간 미만(26.1%), 30분미만(12.0%),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4.41/5.0점이고,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차이는 3.12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다툼의 경우 있음이 75.2%, 없음이 24.8%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4.37점이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평균 1.9/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문제(18.9%)가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15.6%), 자녀양육 및 교육(14.6%), 외로움(13.8%), 경제적 어려움(9.0%), 친구사귀기(5.1%), 가족 간의 갈등(5.0%),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5.0%), 편견과 차별(3.7%),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평균 3.7/5.0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 내용으로는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경우(22.4%)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자녀교육(21.3%), 일자리 관련(19.2%), 여가나 취미(18.6%), 몸이 아플 때 도움(18.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이 정착서비스를 이용 정도는 평균 2.8/11회이며,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지원(17.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사회적응교육(17.4%), 가정방문(15.3%), 부모교육(8.5%),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7.8%), 아이돌보미(6.4%), 일자리교육(6.1%), 각종상담(6.0%), 언어발달지원언어교육(5.6%), 번역서비스(4.9%), 사회활동지원(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공공기관을 이용한 정도는 평균 2.4/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센터(32.0%)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9.6%),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8.3%), 고용센터(7.7%), 사회복지관(7.7%), 여성새로일하기센터(6.0%), 기타외국인지원센터(5.0%), 다누리콜센터(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는 평균 4.0/5.0점이고, 우울증 경험 정도는 4.7점, 사회적 지위는 2.2점, 차별 경험 정도는 3.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는 평균 1.2/6.0회이고, 구체적으로는 모국인 친구와의 모임(51.6%)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종교활동(21.1%), 학부모 모임(11.2%), 지역주민 활동(9.2%), 민간단체 활동(6.2%),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3.8/5.0점으로 나타났다.

〈표 3〉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특성

측정변수 (N = 3,731)	평균(표준편차) / 비율(%)
한국생활 요인	
배우자 대화시간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0.4%), 30분미만(12.0%), 30분~1시간미만(26.4%), 1~2시간 미만(26.1%), 2시간 이상(35.1%)
가족과의 관계(5점)	4.41(0.652)
문화적 차이(5점)	3.12(0.627)
배우자와의 다툼	있음(75.2%), 없음(24.8%)
자녀와의 관계(5점)	4.37(0.716)
한국생활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없었음(9.0%), 외로움(13.8%), 가족 간의 갈등(5.0%), 자녀양육 및 교육(14.6%),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5.0%), 경제적 어려움(9.0%), 언어문제(18.9%),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15.6%), 편견과 차별(3.7%), 친구사귀기(5.1%), 기타(0.4%)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3.7(2.854); 자신이나 집안어려움(22.4%), 일자리관련(19.2%), 자녀교육(21.3%), 여가나취미(18.6%), 몸이아플 때 도움(18.5%)
정착서비스 이용 정도	2.8(2.457); 가정방문(15.3%), 한국사회적응교육(17.4%), 번역서비스(4.9%), 임신출산지원(17.9%), 부모교육(8.5%), 언어발달지원언어교육(5.6%),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7.8%), 사회활동지원(4.0%), 각종상담(6.0%), 일자리교육(6.1%), 아이돌보미(6.4%)
공공기관 이용 정도	2.4(1.394); 다문화가족지원센터(29.6%),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8.3%), 다누리콜센터(3.6%), 주민센터(3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6.0%), 고용센터(7.7%), 사회복지관(7.7%), 기타외국인지원센터(5.0%)
건강상태(5점)	4.00(0.654)
우울증 경험 정도(5점)	4.71(0.452)
사회적 지위(5점)	2.23(0.467)
차별 경험 정도(5점)	3.21(0.602)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1.2(1.059); 학부모모임(11.2%), 모국인친구(51.6%), 지역주민활동(9.2%), 종교활동(21.1%), 민간단체(6.2%),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0.8%)
생활만족도(5점)	3.86(0.773)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결혼이민자는 주로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많으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다툼이 많은 편이고, 언어문제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평균 3.7/5.0개이고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임신출산지원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고, 우울증 경험 정도는 낮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차별 경험을 많이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활동참여 경험(1.2/6.0회)이 비교적 적으며 생활만족도는 보통(3.8/5.0점)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한국생활 요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생활만족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p<0.05$)로는 ①연령($b=-0.060$), ②혼인기간($b=-0.045$), ③가구소득($b=0.092$), ④배우자와의 대화시간($b=0.092$), ⑤가족과의 관계($b=0.235$), ⑥문화적 차이($b=0.041$), ⑦배우자와의 다툼($b=-0.077$), ⑧자녀와의 관계($b=0.127$), ⑨한국생활 어려운 점($b=-0.027$), ⑩건강상태($b=0.016$), ⑪우울증 경험 정도($b=0.152$), ⑫사회적 지위($b=0.182$)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자주 경험할수록, 배우자와의 다툼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한국생활에 어려운 점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중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β) 값 중 0.1 이상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변수들을 보면, ①가족과의 관계($\beta=0.235$), ②사회적 지위($\beta=0.182$), ③우울증 경험 정도($\beta=0.152$), ④자녀와의 관계($\beta=0.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변수요인별로 구분해 보면, 인구학적 요인에는 연령, 혼인기간 등 2개 변수이고, 사회학적 요인은 가구소득 등 1개 변수이고, 한국생활 요인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관계, 문화적 차이,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와의 관계, 한국생활어려운점, 건강상태, 우울증 경험정도, 사회적 지위 등 9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변수요인별로 보면 한국생활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보다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4〉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분석(OLS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B	β
인구학적 요인	성별(여성=0)		0.059	0.024
	연령		-0.005**	-0.060
	최종학력(고졸이하=0)		0.031	0.010
	혼인기간		-0.006*	-0.045
	가구원 수		0.015	0.020
사회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0.001	-0.008
	귀화기간		-0.000	-0.001
	가구소득		0.048***	0.092
	기초생활대상자여부(아니오=0)		-0.037	-0.008
	영주권 취득계획(없음=0)		0.042	0.025
	한국국적취득계획(없음=0)		0.020	0.012
	한국어실력		-0.000	-0.004
한국생활 요인	배우자대화시간		0.071***	0.092
	가족과의 관계		0.278***	0.235
	문화적 차이		0.051***	0.041
	배우자와의 다툼		-0.138***	-0.077
	자녀와의 관계		0.137***	0.127
	한국생활어려운점		-0.025*	-0.027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0.000	0.001
	정착서비스 이용 정도		0.001	0.003
	공공기관 이용 정도		0.001	0.002
	건강상태		0.181***	0.016
	우울증경험정도		0.260***	0.152
	사회적 지위		0.302***	0.182
	차별경험		0.009	0.015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0.018	0.025
Constant			-0.260	-
N / R2 / Adjusted R2			3,731 / 0.450 / 0.446	
F-Value, Sig			116.55 / 0.000	
Durbin-Watson			0.190	
VIF			1.05~2.83	

* <0.05, ** <0.01, *** <0.001

위의 논의한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연령, 혼인기간, 가구소득,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관계, 문화적 차이,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와의 관계, 한국생활어려운점, 건강상태,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요인별로 보면 한국생활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보다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한국생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앞서 연구가설 1(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날 것이다.)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분석

다음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변수의 매개역할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관계 중 ‘가족과의 관계’ 매개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분석모형 1)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우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가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모형 1의 1단계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 < 0.05$)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b = 0.033$)가 가족과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1의 2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b = 0.023$)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1의 3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가족과의 관계($b = 0.504$)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 변수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결혼이민자의 가족과의 관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가족과의 관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변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0.033**	0.055	0.023*	0.032	0.006	0.425
매개변수			가족과의 관계	-	-	-	-	0.504***	0.009
통제 변수	인구 학적 요인	성별	0.058	0.029	0.145***	0.060	0.115**	0.048	
		연령	0.004*	0.059	-0.007***	-0.081	-0.010***	-0.106	
		최종학력	0.005	0.002	0.055	0.018	0.053	0.017	
		혼인기간	-0.012	-0.099	-0.018***	-0.121	-0.012***	-0.078	
		가구원 수	-0.036**	-0.056	-0.008	-0.011	0.009	0.012	
	사회 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0.006*	-0.057	-0.007*	-0.053	-0.003	-0.029	
		귀화기간	-0.000	-0.014	-0.000	-0.012	-0.000	-0.006	
		가구소득	0.022**	0.050	0.112***	0.214	0.101***	0.193	
		기초생활대상자여부	-0.001	-0.000	-0.349***	-0.074	-0.348***	-0.074	
		영주권 취득계획	0.054*	0.039	0.050	0.030	0.022	0.013	
		한국국적취득계획	-0.025	-0.018	0.002	0.001	0.015	0.009	
		한국어실력	0.021***	0.120	0.023***	0.110	0.012***	0.059	
Constant			1.516		3.607		1.516		
R2			0.033		0.114		0.288		
Adjusted R2			0.029		0.111		0.286		
F-Value			9.84***		36.81***		107.76***		
Durbin-Watson			1.90		1.91		1.93		
VIF			1.05~2.80		1.05~2.80		1.03~2.81		

* p<0.05, ** p<0.01, *** p<0.001

주) 1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족과의 관계

2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생활만족도

3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족과의 관계→생활만족도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분석모형 2)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우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모형 2의 1단계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0.05$)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b=0.866$)가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2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b=0.023$)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2의 3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사회적 인적네

트위크($b=0.504$)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변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0.866***	0.321	0.023*	0.032	0.020	0.028
매개변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	-	-	-	0.003	0.013
인구 학적 요인	성별	성별	0.670***	0.075	0.145***	0.060	0.142***	0.059	
		연령	-0.016*	-0.046	-0.007***	-0.081	-0.007***	-0.080	
		최종학력	0.339*	0.030	0.055	0.018	0.054	0.018	
		혼인기간	0.002	0.003	-0.018***	-0.121	-0.018***	-0.121	
		가구원 수	-0.052	-0.018	-0.008	-0.011	-0.008	-0.010	
	사회 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0.003	0.008	-0.007*	-0.053	-0.007*	-0.054	
		귀화기간	0.000	0.017	-0.000	-0.012	-0.000	-0.012	
		가구소득	0.206***	0.107	0.112***	0.214	0.111***	0.213	
		기초생활대상자여부	0.201	0.011	-0.349***	-0.074	-0.350***	-0.074	
		영주권 취득계획	-0.052	-0.008	0.050	0.030	0.050	0.030	
		한국국적취득계획	-0.267*	-0.045	0.002	0.001	0.003	0.002	
		한국어실력	0.069***	0.090	0.023***	0.110	0.022***	0.109	
		Constant	1.437		3.607		3.602		
R2			0.144		0.114				
Adjusted R2			0.141		0.111				
F-Value			48.25***		36.81***				
Durbin-Watson			1.93		1.91				
VIF			1.03~2.81		1.05~2.80				
							1.05~2.68		

* $p<0.05$, ** $p<0.01$, *** $p<0.001$

주) 1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사회적 인적네트워크

2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생활만족도

3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사회적 인적네트워크→생활만족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와 Process Macro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z=3.282$, $p=0.001$). 이

에 반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라는 매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z=0.749$, $p=0.453$) (<표 7>, <표 8> 참조).⁹⁾

<표 7>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Sobel Test)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test statistic	S.E.	p-value
사회적 활동참여→가족과의 관계→생활만족도	3.282	0.005	0.001
사회적 활동참여→사회적 인적네트워크→생활만족도	0.749	0.003	0.453

<표 8>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Process Macro)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Indirect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사회적 활동참여→가족과의 관계→생활만족도	0.017	0.005	0.006	0.027
사회적 활동참여→사회적 인적네트워크→생활만족도	0.002	0.003	-0.004	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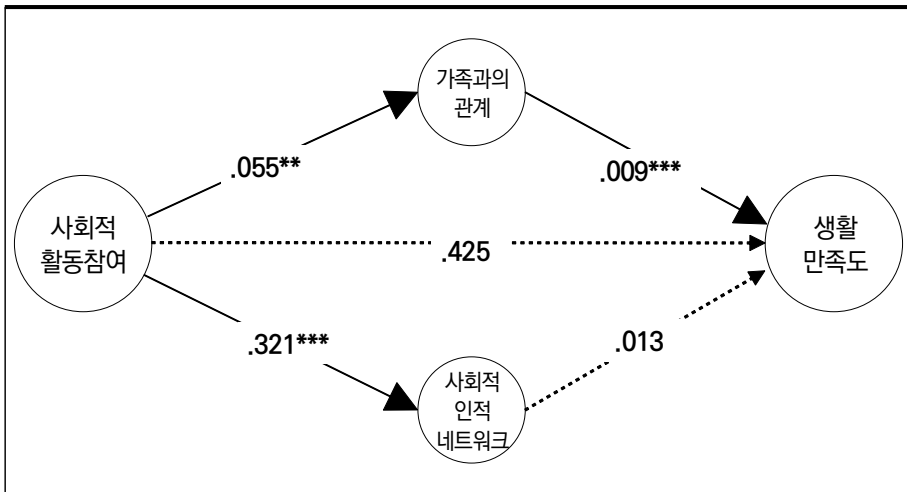
위에서 분석한 매개효과 분석을 정리하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변수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활동참여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라는 매개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9)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Proce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가족과의 관계의 매개효과는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활만족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은 채택이 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3는 가족과의 관계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표 5>와 <표 6>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활동참여, 매개변수인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와 변수들의 통계치와 유의수준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사회적 관계, 생활만족도 간 인과관계 분석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3,731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여성, 30대, 고졸 이

하, 5-10년 미만의 혼인 기간, 4~5명의 가구원 수, 13.5/20점의 한국어 실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긍정적인 생활 측면을 보면,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많으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우울증 경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의 부정적인 생활 측면을 보면, 이들은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배우자와의 다툼이 많은 편이고, 언어문제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낮다고 인식하였고, 차별 경험이 많고, 사회적 활동 경험이 적었고, 생활만족도는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b=-0.060$), 혼인기간($b=-0.045$), 가구소득($b=0.092$), 배우자와의 대화시간($b=0.092$), 가족과의 관계($b=0.235$), 문화적 차이($b=0.041$), 배우자와의 다툼($b=-0.077$), 자녀와의 관계($b=0.127$), 한국생활 어려운 점($b=-0.027$), 건강상태($b=0.016$), 우울증 경험 정도($b=0.152$), 사회적 지위($b=0.182$) 등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자주 경험할수록, 배우자와의 다툼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한국생활에 어려운 점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수요인별로 보면 한국생활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보다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

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변수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활동참여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라는 매개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증 경험 정도와 사회적 지위변수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규명된 요인들이다. 기존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여성, 종교,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등이 있었고(Angelini et al., 2015; Amit, 2010; 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창식, 2010), 사회적 관계요인으로 가족과의 관계(김연수, 2012), 배우자와의 관계(이창식, 2010), 가족 지지도(김연수, 2012), 사회자본(김민수·이현지, 2017), 사회적 차별 경험(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영균·이민자, 2016)이 있었고, 기타요인으로 한국 문화 적응도(김연수, 2012), 건강상태(Angelini et al., 2015), 한국어 수준(김경미, 2012), 도시지역 거주(김한성·이유신, 2013)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대략 일치하는 요인에는 ①연령, ②혼인기간, ③가구소득, ④배우자와의 대화시간, ⑤가족과의 관계, ⑥문화적 차이, ⑦배우자와의 다툼, ⑧자녀와의 관계, ⑨한국생활 어려운 점, ⑩건강상태로 10가지가 해당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새롭게 규명한 요인에는 ①우울증 경험정도, ②사회적 지위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들은 청년층이고 고소득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좋고,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청년층의 고소득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길고,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자주 경험하고, 배우자와의 다툼이 적고,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이민자들이었다. 이는 이들이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좋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한국생활에 어려운 점이 적고, 건강상태가 좋고, 우울증 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들이 한국생활의 정착에 어려움이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에 있어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일차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만족할 때 생활만족도도 더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이고,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사회적 활동참여에 기여는 하지만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 경험은 평균 1.2회이고, 이들은 주로 모국인 친구와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사회적 활동·참여의 범위가 모국인 친구들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민·다문화 지원 공공기관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활동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이민자 커뮤니티별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여기에 더해 다양한 이민자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참여 프로그램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의미있는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규명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요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이외에도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은 향후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승엽·전희정. (2020).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방문취업자 비교”. 「국정관리연구」, 15(2): 1-33.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민수·이현지. (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6: 225-250.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29-256.
- 김유균·김승섭·손인서.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 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남부현·김영인·김옥남. (2016).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2): 101-132.
- 박정은. (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배경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9): 33-5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0년 12월).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정숙.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 103-137.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1): 31-60.
- 이영균·이민자.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관계”. 「한국공공관리학보」, 30(3): 53-76.
- 이영분·최승희·송인석.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163-191.
- 이영희·심영미·강갑원. (20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129-148.
- 이오복.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25-56.

-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0: 299-322.
- 이창식.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4): 717-742.
- 이창식.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4): 717-742.
- Amit, K.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3): 515-534.
- Angelini, V., Casi, L., & Corazzini, L. (2015).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Does Cultural Assimilation Matte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8(3): 817-844.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 Bjørnskov, C., Dreher, A., & Fischer, J. A.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Exploring Different Determinants across Groups in Society. *Social Choice and Welfare*, 30(1): 119-173.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359-1386.
- Clark, A., & Lelkes, O. (2005). *Deliver us from Evil: Religion as Insurance*. PER Working Paper 06/03, European Center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s.
- Douglas, H., Georgiou, A., & Westbrook, J. (2016). Social Participation as an Indicator of Successful Aging: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Health. *Australian Health Review*, 41(4): 455-462.
- Fernandez, R. M., & Fernandez-Mateo, I. (2006). Networks, Race, and Hir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1): 42-71.
- Fong, E., & Shen, J. (2016).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and Social Contact of Immigrants in Canad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5-6): 617-636.
- Gold, S. J. (2001). Gender, Class, and Network: Social Structure and Migration Patterns among Transnational Israelis. *Global Networks*, 1(1): 57-78.
- Hagan, J. M. (1998). Social Networks, Gender, and Immigrant Incorporation: Resources and Constrai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67.
- Helliwell, J.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20(2): 331-360.
- Lai, D. W., Li, J., Lee, V. W., & Dong, X. (2019).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 Chinese Older Immigrants' Social Engag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7(S3): S571-S576.
- Lee, Hye-Kyung. (2008).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State in South Korea: Focusing on Governmental Policy. *Citizenship Studies*, 12(1): 107-123.
- Lee, Hye-Kyung. (2010). *Family Migration Issues in North East Asia Region*. World Migration Report, Background Paper.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Lee, Hye-Kyung. (2013).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2(2): 199-230.
- McCaffery, E. J., & Slemrod, J. (2006). *Behavioral Public Finance*. Russell Sage Foundation.
- Mitra, S. K., & Saphores, J. D. M. (2017). Carless in California: Green Choice or Miser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65: 1-12.
- Moons, P., Budts, W., & De Geest, S. (2006). Critique on the Conceptualisation of Quality of Life: a Review and Evaluation of Different Conceptual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7): 891-901.
- Palmore, E. B. (1981). *Social Patterns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Pavot, W., & Diener, E. (2008).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he Emerging Construct of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2): 137-152.
- Phillips, D. L. (1967). Social Participation and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5): 479-488.
- Piper, J., & Roces, M. (Eds). (2003). *Wife or Workers?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 Inc.
- Piper, N. (1997).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Race and Gender Perspective. *Gender, Place, and Culture*, 4(3): 321-338.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 Safi, M. (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 475-492.
- United Nations. (2017).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UN Department of Social and Economic Affairs.
- Veenhoven, R., Saris, W. E., Scherpenzeel, A. C., & Bunting, B. (1996). *A Comparative Study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Europe*. Budapest: Eotvos University Press.

Vohra, N., & Adair, J. (2000). Life Satisfaction of Indian Immigrants in Canada.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12(2): 109-138.

Abstract and Key Words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

Lim, Dong-Jin

Soonchunhyang University

Park, Kwan-Ta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social relationships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so, based on th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questionnaire data on 3,731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Korea in 2018. The main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re female, in their 30s,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married for less than 5-10 years, number of 4-5 household member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core of 13.5/20. Second, marriage immigrants felt difficulties with language problems, perceived that their social status was low,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as relatively low, and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average. Third,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were family relationship, social status, degree of depression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children. That is, among marriage immigrants, the bett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y, the higher their social status, the less they experienced depression, and the bett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e higher their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mor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the high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e parameter of relationship with family played a mediating role, increasing thei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Social Relationships]

